

언제나 어디서나 그리스도인



평화의 씨앗을 심는 우리
 마태5:9



하나님께서로 나아가는 한적한 오솔길
 사랑과 나눔을 배우고 실천하는 곳
 청파교회는 함께하는 공동체입니다.

주 일 낮 예 배 순 서

【 주현절 둘째 주 】

전 주	반주자	
은총을 기리는 노래	비 전	다함께
예배로의 부름	인도자	

♠ 경배의 찬송	11. 거룩한 주님께	다함께
----------------	-------------------	-----

♠ 공동기도	다함께
--------------	-----

자비하신 하나님, 맡겨진 세상일을 감당하느라 지친 저희들이 주님께 나왔습니다. 산을 오르면 내려와야 하고, 길을 떠나면 돌아와야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로부터 온 생명이기에 하나님께로 돌아옵니다. 하오나 주님, 우리 마음을 보십시오. 때묻어 빛을 잃고, 상처입어 피 흘리고, 세파에 시달려 평온이 없고, 활달함을 잃고 작아졌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고쳐주십시오.

왜 사는지, 또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잊어버린 채 시간의 너울속에서 자맥질만 거듭하는 저희들입니다. 이제 더 사랑하며 살게 해주십시오. 더 많이 낮아져서 섬기며 살게 해주십시오. 헛된 말보다는 손과 발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살게 해주십시오. 인색함과 교만함의 중력으로부터 벗어나, 참 자유인이 되어 살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

♠ 참회의 침묵기도	다함께
------------------	-----

♠ 위로의 말씀	렘29:11	인도자
----------------	--------------	-----

♠ 교 독 문	6. 시편15편	다함께
---------------	----------------	-----

♠ 영 광 송	3. 이 천지간 만물들아	다함께
---------------	---------------------	-----

대표기도	I. 광권희 집사 II. 윤정덕 장로
------------	----------------------

응 답 송	성가대
-------------	-----

찬 송	216. 아버지여 나의 맘을	다함께
-----------	-----------------------	-----

성경봉독	I. 마25:31-46	인도자
------------	--------------------	-----

II. 옴16:1-6	허정윤 권사
-------------------	--------

찬 양	성가대
-----------	-----

말 씬	I. 우리가 어느 때에	김재홍 목사
-----------	--------------------	--------

II. 산 말, 죽은 말	김기석 목사
---------------------	--------

거둠의 기도	다함께
--------------	-----

헌신의 찬송	414. 주의 사랑 비칠 때에	다함께
헌금봉헌		다함께
♠ 봉 헌 송	354. 내 죄 속해 주신 주께	다함께
♠ 봉헌 및 목회기도		인도자
공동체 소식		인도자
♠ 평화의 인사		다함께
♠ 결단의 찬송	평화의 기도(성 프란시스코)	다함께
♠ 보냄의 말씀		다함께

인 도 자 : 교우 여러분, 이제 평안히 돌아가십시오. 복음의 말씀을 들었으니 참 자유인답게 사십시오. 고통받는 사람들 곁에 다가가 그들의 손을 붙잡으십시오. 말을 앞세우지 말고, 몸으로 말을 하며, 이웃의 아픔 속에서 주님의 아픔을 보십시오.

다 함 께 : 아멘, 주님. 그리 하겠습니다. 이제 욕망에 굴복하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주시고, 세상의 돌부리에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말씀의 등불을 우리 앞에 비춰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속에 생명의 숨결을 불어넣으시어 우리의 생각이 주님의 생각과 일치되게 해주십시오. 아멘.

♠ 축 복

담당목사

☼ 우리의 내일은 밝습니다 ☼

주일 오후 집회	수요 집회
에스겔 통독 강좌(37)	신명기 강해(28)
기도 : 김재흥 목사/정현주 집사(23)	기도 : 노순옥 권사

다음 주 예 배 위 원	설교	기도	성경봉독
	김재흥 목사 김기석 목사	황경순 집사 조병무 장로	인도자 김정길 권사

1월	영접위원	조병무 이인웅 김용길 곽혜자 허정윤 박미영
	헌금위원	윤정덕 김준호 안길상 임창선 김성자 송양진

기도를 심어주는 일

자기를 사랑할 줄 알게 될 때 우리는 남의 허물을 미워하고 심판하는 대신 그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줄 알게 된다. 이것의 반대가 침략과 전쟁의 바탕을 이룬다. 우리는 우리의 것과 다르게 보이는 종교, 피부색, 언어, 성(性)을 심판하고, 그리하여 전쟁을 일으킨다. 이 전쟁은 민족이나 종교들 사이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다. 좁은 골목, 차들이 밀려있는 고속도로, 직장, 가정에서도 날마다 벌어지고 있다. 그리고 그 전쟁은 바로 우리가 벌이기로 선택한 것이다. 우리가 참전하지 않으면 그런 전쟁은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는다. 우리 속에서 생겨난 갈등이 밖에서 충돌을 일으킨다. 당신이 만일 자신을 미워한다면 세상과 세상의 어떤 부분을 미워하게 될 것이고, 그러면 곧장 세상도 당신을 미워할 것이다. 이는 보편 진리다.

세상에 두려움이 덜 생겨날수록 더 큰 평화가 뒤따를 것이다. 기도는 이 기쁨을 남에게 심어 주는 위대한 수단이다.

물론 기도는 당신 개인의 성전에서 침묵으로 바쳐지거나 기도 모임에서 함께 나눠질 수 있다. 어떤 사람을 새로 만나거나 신입사원이 당신 사무실에 들어올 때 그를 따뜻하게 맞아 주는 것도 기도다. 낯선 사람에게 차갑고 투명스런 얼굴을 보여 주는 대신 다정하게 웃어 주는 것도 기도가 될 수 있다.

다른 사람 속에 기도를 심어 주는 일은 따스한 가슴에서 우러나는 몸짓을 통해 실현된다. 그 따스한 가슴이란, 자기를 아는 지식을 통해 동정이 무엇인지를 이해하게 된 가슴이다. 자기를 아는 지식은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데서 생겨난다. 모든 종교가 이를 가르치고 있다. 그것을 시험하고 분석하고 학문적으로 파헤쳐 볼 필요는 없다. 날마다 당신에게 일어나는 일을 지켜보기만 하면 된다. 예컨대, 버스를 타려고 줄을 서 있는데 누가 당신 앞으로 새치기를 한다. 그때 당신이 어떻게 화를 내고 있는지 지켜보는 것이다. 당신 속에서 솟구치는 분노는 그의 잘못이 아니다. 물론 당신 잘못도 아니다. 당신의 분노는 다른 감정들과

함께 나란히 거기에 있다. 그것이 상처를 입히는 것은 당신이지 다른 사람이 아니다. 만일 당신이 다른 사람을 밀치고 새치기를 한다면 그에게 상처를 입히는 것은 그의 분노지 당신의 분노가 아니기 때문이다.

분노의 감정은 신체 내부에서 전기반응을 일으켜, 신체를 혼란에 빠뜨리는 아드레날린 같은 화학성분을 주사(注射)한다. 온통 분노로 가득 차 있는 대도시의 공기를 마시며 살아가는 우리는 이 ‘주사’에 길들여져 있어서 인생이 으레 그런 것이려니 하고 받아들인다. 우리 몸은 밖에서 오는 감정적 반응들에 온종일 견어 채이고, 고요하며 충만한 하루를 살아보려는 시도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밖에서 오는 감정적 자극에 대한 우리의 반발심에 이끌려 다니느라고 바쁘기 때문이다.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동정심을 느낄 것인가? 우리는 주변에서 발생하는 자극들에 너무 지쳐 있다.

그러나 만일, 어떤 사람이 우리 앞에서 새치기를 할 때 솟구치는 분노를 하나의 ‘습관’으로 받아들인다면, 그래서 “흠, 늘 그랬듯이 이번에도 화가 치미는군!” 하고 자신에게 말할 수 있다면, 그리하여 그것에 연관된 아무 짓도 하지 않는다면—마음을 다른 습관, 이런 상태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습관으로 돌려버린다면—약간의 연습으로 상대에게 감정적 대응을 하지 않을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일이 일어나기 시작할 때 우리는 마치 무슨 마술을 부리는 것같이 된다. 우리 자신에 대하여, 우리를 화나게 했다고 여겨지는 인간과 인생 자체에 대하여 좀더 좋은 느낌을 느끼게 되기 때문이다. 다른 사람들이 그를 욕하고 밀쳐 버리거든 그것도 그냥 그렇게 하도록 내버려 두라. 바야흐로 그들은 고통을 겪게 될 것이다. 당신은 아니다. 새치기한 친구에게, 그를 다른 눈으로 보는 은전(恩典)을 베풀어 보라. 어찌면 그는 지금 절박하게 바쁜 처지일지도 모를 일이다. 아니면, 자기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모를 만큼 정신이 딴 데 가 있을 수도 있다. 그는 화를 낼 상대가 아니라 오히려 측은하게 여길 인간이다. 그가 당신보다 먼저 버스를 타더라도, 그게 사실은 별것 아니니, 그렇게 하도록 버려 두라. 세상은 이렇게 남의 가슴속에 기도를 심어 주는 당신의 행위로 말미암아 훨씬 살기 좋아질 것이다.

자기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깨달아 아는 것이야말로 하나의 기도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기 때문이다.(필립 뉘, 『기도』 중에서)

▣ 마/음/으/호/읽/는/글

손(1)

손은 쓸데없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언제나 묵묵히 일할 따름.

손은 움켜쥐는 힘이 펼치는 힘보다 썩니다. 움켜질 때 이기적이라면, 펼칠 때 이타적입니다. 손은 본질적으로 이기적입니다.

일하는 손은 정직하지만, 얻은 것을 감추는 것도 손이 하는 일입니다. 나눔은 손을 깨끗이 하는 일입니다. 나눔은 부끄러움을 씻는 일이기도 합니다.

두 손 가득 움켜 내게로 당겨오지 않고 들어 이웃에게 드리면 넉넉한 나눔의 손길이 됩니다. 거룩한데 올리듯 높이 들어 나누는 손길은 나눔의 예배이기도 합니다.

서로 손 마주잡기

손에 손 이어 쥐기

손에 손잡으면 강강수월래가 됩니다.

네 손은 내게 힘이 되고, 내 손은 네게 힘이 되는 아름다운 전선입니다. 내 안에 숨겨진 힘을 네 손을 통해 찾아내고, 네 마음에 감추어진 힘을 내 손에서 발견하는 신비.

손에 손잡으면 그렇게 마음이 통해서 손길이 마음길이 되기도 합니다.

차가운 손끼리 만나서 더운 손이 됩니다.

손에 땀이 차도록 함께 하면 맞잡은 손끼리는 나아갈 길도 절로 압니다.

맞잡은 손으로 알아 가는 세상 길. 인생 길.

혼자 부르짖는 단주먹의 외로움을 생각하면 그 손 놓치고 싶지 않습니다. 함께 쥐는 주먹의 뜨거움.

—이철수(판화가)

◇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이들 ◇

담임목사 : 김기석 부담임목사 : 김재흥

원로목사 : 박정오 소속목사 : 한인철 원로전도사 : 박옥식

원로장로 : 방현복 김춘려 전영규 김성한

장 로 : 윤정덕 강인식 김철수 조병무 한완식 구성실 이용한 윤석철

성가대장 : 한상의 지휘 : 윤주원 반주 : 최윤선 안홍숙 한선희 김수진

관 리 인 : 노용래 운전기사 : 오진훈 도서관 관장 : 이순정

◇ 한글 영수기 ◇

십일조헌금:

김기석	김희우	박정오	장민숙	김재흥	최희영	김춘려	방현복	윤정덕
구성실	김철수	유영남	조병무	송양진	한완식	임정자	방문성	박해경
한상의	정영선	조관행	홍선희	박창운	허정윤	구명자	고사일	최영선
임승동	백혜숙	박성수	김애경	백묘현	김정길	최숙화	이인웅	최종원
이봉옥	백승민	정완수	김재광	박명숙	임창선	김윤수	박옥경	윤수진
이정규	이인섭	김혜권	박영희	윤미경	김지호	김지윤	노봉임	박재실
이경남	김순복	전영웅	전영순					

월정헌금:

하현철	최성해	하정석	이명희	유증희	이재운	오현정	조항범	김승현
김수진	김명순	송남철	표명화	김흥기	황경순	김남종	오복순	문금석
김창원	정지은	최주환	문복순	정두리	황원순	박준희	이기분	황자순
조병주	이정은	박정석	고숙이	박찬정	김미순	조항신	김 크	유창호
지명주	김종문	이갑재	박순성	이봉배	송의섭	전영자		

감사헌금:

우승수	전힘찬	박규석	박재임	박창운	허정윤	오현정	김진혁	이현주
왕성한	강순배	김순복	황경순	박정자	유혜경	윤수진	윤정덕	구성실

무명1

◇ 속 회 보고 ◇

속 명	인 도 자	속 장	모 인 곳	다 음 장 소
예루살렘	유 영 남	차 혜 심	섬	섬
베들레헴	노 순 옥	정 경 례		
안 디 옥	임 정 자	곽 권 희		
가 나 안	문 영 혜	박 경 선		
갈 릴 리	조 병 주	박 애 순		
베 다 니	임 창 선	박 흥 재		
시 온	박 효 선	허 정 윤		
엠 마 오	최 숙 화	권 미 정		
에 베 소	이 순 정	장 혜 숙		
빌 립 보	구 성 실	박 현 우		
가 버 나 움	구 명 자	안 흥 숙		
나 사 렛	백 혜 숙	정 옥 영		
갈 라 디 아	송 양 진	유 경 순		
고 린 도	이 영 란	이 증 자		
다 메 섯	박 해 경	최 영 혜		

■ 교/회/소/식/

◎ 그리스도인에게 선교는 의무가 아니라 기쁨입니다 ◎

1. **월례회** : 오늘 예배 후 제2·4남녀 선교회 월례회가 있습니다.
2. **구역회** : 새해 예산안을 확정하고 지방회 대표를 선출하는 구역회가 오늘 오후 3시 30분 지하 친교실에서 열립니다. 구역회원은 교역자, 장로, 권사, 속장, 각 부 부장, 남녀선교회 회장 대표, 청년회 회장, 교회학교 교장, 당회서기, 감사입니다.
3. **구도헌금** : 우리 욕망을 조금만 줄이면 어려운 이웃들을 도울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금년에는 모두가 구도헌금에 동참해 나눔을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4. **아름다운 원로 모임** : 20일(목) 10시 30분에 중고등부실에서 모입니다.
5. **선교회장 간담회** : 다음 주일(23일) 오후 집회 후 중고등부실에서 모입니다. '평화의 씨앗을 심는 우리'라는 금년도 표어에 따른 실천방안들을 모색하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6. **교육부회의** : 오늘 예정되어 있던 회의를 다음 주일(23일) 오후 집회 후로 옮깁니다. 교육부원들과 전 교사들이 한 해 교육계획 나누는 시간을 가질 것입니다. (장소: 청년부실)
7. **담임목사** : 18일(화) 저녁에 춘천 평화교회에서 열리는 춘천북지방 사경회에서 특강을 합니다.
8. **신앙실천** : 이번 주중에 하루를 '이웃과 음식 나누는 날'로 정하고 살뜰하고 정겨운 음식을 나누어 보십시오. 예수님이 머무시는 곳마다 식탁공동체가 형성되었음을 기억하십시오.

* 헌화 : 박옥식 전도사 (부모님 추도)

◇ 집 회 안 내 ◇

부별	시간	장소	부별	시간	장소
유 아 부	10:50	유아부실	1부예배	09:30	교육관
유 치 부	10:50	유치부실	2부예배	11:00	대예배실
유초등부	10:50	교육관	오후집회	14:00	교육관
중고등부	10:50	중고등부실	수요집회	19:30	교육관
청년회	16:00(±)	청년회실	새벽기도회	06:00	교육관